대한정치학회보 31집 3호
The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23년 8월 : 27~61
http://doi.org/10.34221/KJPS.2023.31.3.2
ISSN 1229-5469(Print)
ISSN 2671-5384(Online)

김정은 시기 핵능력과 국가전략의 연계성 분석 : 신년사 텍스트마이닝 분석과 인과적 과정 추적법의 병행*

박 성 호**

•요 약•

이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능력과 국가전략 간의 연계성을 분석했다. 기존 연구는 이에 대한 구체화가 상대적으로 미진했으며, 대다수 연구의 방법론이 이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핵심 데이터인 북한 신년사(2013~2019)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과 인과적 과정 추적법을 병행함으로써 북한의 레토릭과 실제 행위 간의 연계성을 구체화했다. 연구 결과, 핵능력 강화 전후 북한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와 실제 행위와의 강한 연계성을 확인했다. 혼합 방법론에 입각한 접근은 신년사에서 강조하는 키워드를 실제 대내외적 행위와 연계해 분석함으로써 양자 간의 연계성을 구체화한 의의가 있다. 이는 북한을 더욱 다각적이며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북한, 핵능력, 국가전략, 텍스트마이닝, 인과적 과정 추적법

Ⅰ. 서론

북한은 2022년 9월 8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조선인민민주의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이른바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였다.[1] 해당 법

* 이 연구는 ‘2022년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공모사업 지원 하에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혁신 과학기술 시대의 정치적 문제 해결 교육연구단’ 산하 ‘Text Mining North Korea Lab’에서 수행했으며, 해당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수료

1) 서재준, “北, ‘핵무력 정책’ 새 법령 채택…11개 조항으로 ‘선제공격시 핵사용’(종합)”, 『뉴스1』(2022년 9월 9일), https://www.news1.kr/articles/4798824(검색일: 2023.06.14).

령의 채택 및 공포는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에서 강조한 ‘핵보유국’ 선언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상황 인식 및 행위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시기 광폭적인 행보는 이를 뒷받침하는데, 수차례의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IRBM(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중장거리탄도유도탄) 등의 실험은 북한의 투발 수단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 시기 핵능력 변화는 단기적 차원보다는 중·장기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즉 앞선 북한의 행위는 단기적 발생이 아닌, 핵능력의 지속적인 강화에 따른 유기적 연계로 볼 수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략 핵무기 및 핵전략을 더욱 발전시킴에 따라 비핵화를 위한 비용과 리스크 역시 상승함을 지적한다.[2] 이는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적 차원의 긴장과 갈등, 나아가 분쟁의 위험을 심화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우려 또한 증폭 중이다.[3] 이렇듯 북한 행위의 핵심에는 핵능력 향상으로 점철되는 ‘안보 능력의 강화’가 위치하는데, 해당 사안을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요원해질 것이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능력 변화와 국가전략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전술했던 맥락을 바탕으로 ‘안보 능력의 강화는 북한의 국가전략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핵능력 강화 전후(前後) 북한의 국가전략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답변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핵능력 강화 이전에는 대내통치에 집중한 국가전략을, 이후에는 대외관계 개선 및 ‘경제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하 병진노선)’의 다른 한 축인 경제 영역에 대한 강조가 반영된 국가전략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연구 주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북한의 1차 자료인 신년사에 대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한 분석과 대외관계 일지에 대한 인과적 과정 추적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가 북한의 핵능력과 국가전략 간의 연계성을 구체화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미진했으며, 대다수의 방법론이 해당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음에 기인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능력 변화와 국가전략을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레토릭과 실제 행위 간의 연계성을 구체화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나아가, 북한의 행위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2) Dalton, Toby, and Jina Kim, “Rethinking Arms Control with a Nuclear North Korea”, *Survival*, vol. 65, no. 1, 2023; Narang, Vipin, and Ankit Panda, “North Korea: Risks of Escalation”, *Survival*, vol. 62, no. 1, 2020.

3) 김인경, “북한 핵무기 법제화에 국제사회 우려…‘안보 위협’”, 『이데일리』(2022년 9월 10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32458808(검색일: 2023.06.14).

설명함으로써 보다 중·장기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Ⅱ장에서는 이 연구의 핵심 변수인 북한의 핵능력과 국가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의 공백을 포착하고, 이 연구의 보완 지점과 대안적 분석 틀을 구체화한다. 분석 틀을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핵능력 강화 이전, Ⅳ장에서는 핵능력 강화 이후의 국가전략을 핵심 연구대상인 북한 신년사와 대외관계 일지를 통해 구체화한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며, 한계 및 의의를 종합한다.

Ⅱ. 북한의 핵능력과 국가전략에 대한 검토

1.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북한의 핵능력, 특히 김정은 시기에 들어 '다변화되고 발전된 안보능력'을 많은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왔다. 논의의 핵심은 '김정은 시기의 핵전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핵 태세(nuclear posture) 분석에 기초한 김정은 시기의 핵능력 수준 평가로 연구의 공통점을 집약할 수 있다. 비핀 나랑(Vipin Narang)의 핵 태세 분류에 따르면, 해당 태세는 촉매(Catalytic Posture)/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Posture)/비대칭확전태세(Asymmetric Escalation Posture)로 구분이 가능하다.[4] 세 가지 태세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는 북한의 핵전략을 확증보복태세 혹은 비대칭확전태세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활발히 논쟁 중이다. 양자의 차이는 단순히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뿐만 아니라, 핵능력의 배치 및 운용 여부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운용전략 등 세부적인 요소에서 상이하다.[5] 다만, 이번 절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변화'라는 지점에 주목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확증보복태세로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전략이 실질적인 확전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낮고, 선제 사용보다는 체제 생존을 위한 수단임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6] 반면 비대칭확전태세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김정은 시기 고도화되는 핵능력과 관련 법

4) Narang, Vipin,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5) 보다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본윤·박성호, "김정은 시기 핵전략의 이중성: 확증보복태세와 허세부리기", 『통일연구』, 제26권 제2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22, p.166 참조.

6) 구본윤·박성호, 위의 논문; 김홍익, "김정은 시대의 북한 핵전략: 왜 확증보복태세인가?", 『한국군사학논집』 제77집 제2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1; Lee, Dong Sun, and Iordanka Alexandrova,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Envisioning Assured Retali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21, no. 3, 2021; Smith, Shane,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Strategy", *North Korea's Nuclear Future Series*, US-KOREA INSTITUTE AT SAIS, 2015.

령을 근거로 북한의 공세적인 변화에 집중한다.[7] 즉 적의 핵공격 뿐만 아니라 재래식 공격까지 억제하는 차원에서 핵의 선제적 사용 선언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북한 핵전략 수준의 구체화에 기여하는 연구 의의가 있으나, 이 연구가 주목하는 핵능력과 국가전략 간의 연계성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핵능력과 국가전략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는 핵전략 관련 연구에 비해 활발히 수행되지 않았는데, 북한의 국가전략이 구체적 수준에서 외부에 명시되지 않았음에 기인한다. 이는 북한 체제의 내생적 특징인 높은 폐쇄성은 물론, 국가전략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북한이 충족했는지에 대한 합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탈냉전 이후 북한이 처한 대외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북한이 최우선으로 삼은 국가전략의 목표는 체제 생존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안보전략의 성격을 강하게 띤 특징으로 이어진다.[8] 해당 특징을 전제로, 북한의 국가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ing)이라는 안보전략 프레임을 활용해 김정은 시기 국가전략이 균형-편승에서 다시 균형으로의 재전환을 꾀한다고 분석한다.[9]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은 '핵무력 중심의 군비경쟁'과 '현실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국제제재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해 균형전략을 추진한다는 주장이다.[10] 1978년 개혁개방기 중국과 김정은 시기를 비교함으로써, 신냉전 구도의 심화 속에서 '국방력 강화'와 '자력갱생'을 통해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지속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유사한 결이다.[11] 종합해보면, 기존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은 여전히 안보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대외환경을 인식하며, 안보능력의 강화를 통해 위협을 상쇄하겠다는 의지를 국가전략에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안보위협이 북한의 국가전략 기저에 위치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국가전략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상대적으로 간과한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국가전략의 구성 요소를 보다 면밀히 정의하지 않고 안보전략 그 자체로 다룰 경우 균형과 편승 사이에 위치한

7) 정성윤, "북한의 핵전력과 핵전략", 정성윤 외 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Narang, Vipin,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8, no. 1, 2015.

8) 안경모, "'새로운 전략적 노선'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 균형전략으로의 재전환과 그 함의", 『한국정치연구』, 제32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3, p.169.

9) 안경모, "북한의 대외전략 분석(2008~2016): '편승'에서 '균형'으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2권 제4호, 세종연구소, 2016; 위의 논문. 균형전략은 '물리적 힘을 통해 위협을 상쇄하는 전략'이며, 편승전략은 '적대성 완화로 위협을 감소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전략은 '내적(internal)/외적(external) 균형' 및 '전형적(typical)/갈등적(conflictual) 편승'으로 더욱 세분화되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경모, 위의 논문, pp.169-170 참조.

10) 안경모, 2023, 앞의 논문.

11) 김태경, "'사회주의 전면발전론'과 김정은 정권 중장기 국가전략: 개혁개방기 중국 장기 발전전략의 비교적 시각", 『한국정치연구』 제32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3.

행위에 대한 설명은 어려워진다.

한편, 북한의 핵능력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을 논의한 기존 연구 역시 존재한다.[12] 연구 목적에 입각한 다양한 접근 및 분석이 이뤄졌는데 북한의 핵개발은 대외정책의 변화 나아가, 국가전략 수준에서의 변화를 추동했다는 공통된 지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이른바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무기가 된 것이다.[13] 그렇다면 핵능력 강화는 공세적 국가전략으로의 귀결을 의미하는가? 북한의 국가전략은 핵개발 시기에 그 공세성이 강화되는 특징은 보이지만,[14] 핵개발이 언제나 공세적인 국가전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15] 이른바 '핵무기 딜레마'에 처한다는 것인데, 안보능력의 강화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지만 이로 인해 더 강력한 외부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역설이다.[16] 따라서 핵능력 강화만으로 북한이 공세적 국가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듯 기존 연구는 북한의 핵능력과 국가전략의 연계성에 대해 나름의 구체화를 시도했으나, 북한의 국내정치 변수가 상대적으로 간과된 채 안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을 논의한 특징을 보인다. 나아가, 방법론적 측면에서 북한의 1차 자료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부족해 양자 간의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북한의 핵능력과 국가전략에 대한 연구 질문과 주장을 도출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김정은 시기 핵능력 강화는 대외정책의 변화는 물론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논리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핵능력 강화 전후 북한의 국가전략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즉 김정은이 공식화한 '핵무력 고도화' 시점 전후의 국가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강조점을 갖는지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해당 연구 질문에 대해 '핵능력 강화 이전에는 대내통치에 집중한 국가전략을, 이후에는 대외관계 개선 및 '병진노선'의 다른 한 축인 경제 영역에 대한 강조가 반영된 국가전략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연구 주장을 검증하고자 한다. 즉 안보능력의 강화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국내정치에 중점을 두고, 이

12) 안경모, 2016, 앞의 논문; 이종주, "북한 핵정책의 변동(2009~2017): '전면적인 내부적 균형'의 핵정책 형성", 『국제정치논총』, 제59집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9; 홍우택, "북한의 국가성향 분석과 모의분석을 통한 핵전략 검증",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4호, 한국국방연구원, 2017; 황지환, "북한은 핵실험 이후 더 공격적인가?: 현상타파 대외전략과 현상유지 대외정책의 결합",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제1호, 한국정치학회, 2018; Lee and Alexandrova, op.cit.

13) 안경모, 위의 논문, p.27; 이종주, 위의 논문, pp.120-121; 홍우택, 위의 논문, p.110; 황지환, 위의 논문, p.142; Ibid, p.385.

14) 안경모, 위의 논문, pp.25-26; 홍우택, 위의 논문, pp.110-111; 황지환, 위의 논문, p.141.

15) 황지환, 위의 논문, pp.141-142.

16) 이종주, 앞의 논문, pp.123-124; 황지환, 위의 논문, p.142.

후에는 안정된 국내 기반을 바탕으로 대외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논리다.

더불어 앞선 검토에서 국가전략 개념의 모호성을 공통적으로 확인한 바, 이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그림 1〉을 참조하면 국가의 대전략(Grand strategy)은 특정 국가의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이며, 대전략에서 비롯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은 정치/외교/경제/과학기술/군사 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대내외 정책의 합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가전략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한 접근이 가능하다. 즉 이 연구에서 북한의 국가전략은 대내외 정책을 포괄한 개념으로,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실제 정책 및 행위의 합으로 정의한다. 또한 북한 핵능력의 경우, 국가전략의 하위 분야인 군사전략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1차 문헌에서 북한이 표현하는 레토릭을 바탕으로 파악한다.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서술하겠지만, 북한의 레토릭을 1차 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실제 행위와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출처: 차정미,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전략: ‘세기의 대변화론-중국몽-일대일로’ 연계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제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p.82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

〈그림 1〉 대전략의 형성 및 구조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는 북한의 1차 자료인 신년사에 주목한다. 신년사는 자료 접근 제한성이 높은 북한 연구에 유의미한 1차 자료라고 볼 수 있으며,[17] 이를 통해 북한의 당해 연도 정책 방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공통된 지적은 신년사의 연구 가치를 뒷받침한다.[18] 특히 국가전략은 대전략에 비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최고지도부의 공식 연설 및 발표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제언은 국가전략 구체화를 위한 신년사 분석의 적합성을 더욱 향상한다.[19] 나아가, 신년사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김정은 시기의 특성은 텍스트 데이터 수집의 연속성과 용이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에 직결된다. 북한 연구에서 1차 자료 수집의 연속성 확보가 콘텐츠 분석에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20] 북한의 신년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신년사의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지속과 변화 지점을 다양한 분야에서 설명해 왔는데,[21] 이 지점 또한 북한 1차 문헌이 대내외 정책, 즉 국가전략의 파악에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최고지도자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인 북한이 일방향적(one-way)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갖고 있고, 대외정책 역시 최고지도부의 전략적 선택에서 비롯해 발표됨을 염두에 두면 더욱 그러하다.[22]

물론 전제해야 할 것은, 신년사 자체를 북한의 국가전략으로 동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외정책의 이행(implementation)에서 이행 기간의 차원이 단기, 중기, 장기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파악이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23] 이러한 한

17) 박종희 외,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15, p.28.

18) 남광규, "북한의 '민족공조' 강화와 한미관계 -〈신년사〉 내용과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제18권 제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pp.86-87; 위의 논문, p.56; Delury, John, "North Korea in 2019: A Year of Strategic Adjustment", *Asian Survey*, vol. 60, no. 1, 2020, p.72.

19) Scobell, A., et al., *China's Grand Strategy: Trends, Trajectories, and Long-Term Competition*,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20, pp.10-11: 차정미, 앞의 논문, p.82에서 재인용.

20) 박성호 외, "북한은 유튜브를 통해 무엇을 말하는가?: 주제 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5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21, pp.137-138.

21) 김완서, "김정은 신년사 연도별 담화 비교 분석: 2017년, 2018년, 2019년 신년사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80집, 동악어문학회, 2020; 김원식·이기동,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 동향 분석", 『INSS 전략보고』 93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남광규, 앞의 논문; 이성춘, "북한 신년사 분석을 통한 김정은 시대 지속과 변화", 『융합보안 논문지』, 제14권 제6호, 한국융합보안학회, 2014;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 신년사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제12권 제2호, 인문사회 21, 2021; 한승호·김관호, "북한 신년사(2013~2017)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의 농축수산업 분석", 『평화학연구』, 제18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7.

22) 박성호 외, 앞의 논문, p.132.

23) Brighi, Elisabetta, and Christopher Hill, "Implementation and Behaviour", *In Foreign Policy: Theories, Actors, Cases*, edited by Steve Smith, Amelia Hadfield, and Timothy Dun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계를 보완하기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연속성을 지닌 '당국이 공개한 공식 자료'인 신년사에 근거해 북한의 대내외적 국가 행위를 확인하고 연계성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우회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북한의 핵능력과 국가전략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폐쇄성이 높은 현실적 제약을 우회하는 방안으로 1차 자료인 신년사를 선정한 것이다. 또한 양자 간 연계성 분석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부족했음을 확인했다. 이상의 검토 및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이 연구의 접근 방향과 연구 분석 틀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2. 신년사에 대한 텍스트마이닝과 인과적 과정 추적법 기반의 접근

북한 신년사에 대한 분석은 질적 차원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계량적 차원, 특히 텍스트 분석에 입각한 접근 역시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북한의 신년사(1946~2015)에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automated text analysis)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지도자별 정책 기조와 대외관계에 대한 태도를 구체화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해당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문서의 총체적인 구조와 문서 간 상관성을, 미시적 차원에서 북한이 사용하는 핵심 단어의 빈도, 위치, 사용방식에 중점을 두어 결과를 도출했다.[24] 김정은 시기를 크게 3개(① 평화조성 이전, ② 평화조성, ③ 평화조성 침묵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해당하는 신년사 및 연설문(① 2017 신년사, ② 2018/2019 신년사, ③ 2019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시정연설)에 대해 동시출현 단어 분석과 시각화로 변화 지점을 추적한 연구도 존재한다.[25] 나아가, 북한의 신년사를 비롯한 김정은의 연설 및 담화, 로동신문의 사설을 포함한 1차 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해 '김정은 시기의 통치담론'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새로운 지도자의 권력기반 강화, 핵·미사일의 고도화, 대미 핵협상 시기를 거치며 국내정치와 대외환경 간 상호작용이 지속과 변화를 가져왔지만, 큰 틀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음을 강조했다.[26] 이러한 접근은 북한의 1차 문헌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기법 적용 및 설명의 적합성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분석하려는 북한의 핵능력 변화와 국가전략과의 연계성을 구체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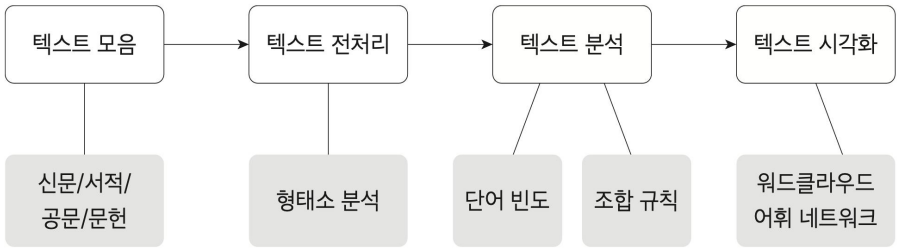
이 연구는 북한의 1차 문헌인 신년사를 핵심 연구대상으로 삼아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24) 박종희 외, 앞의 논문.

25) 박철수,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지도자의 신년사 및 연설문 트렌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제26권 제3호, 한국데이터전략학회, 2019.

26)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0.

인과적 과정 추적법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텍스트마이닝 기법(Text Mining Analysis)은 양적 연구 방법론으로써 특히 북한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 접근 제한성이 높은 연구대상의 내재적 특성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상당 부분 입각한 기존 연구를 염두에 둘 때, 북한 텍스트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과 더불어 양적 연구방법으로써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상호보완적 의미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27] 즉 해당 기법은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인 텍스트를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정제함을 핵심 원리로 하는데, 텍스트 안에 내재된 의미를 도출하는 목적에서 적합하다.[28] 이러한 기법을 통해 북한 텍스트 분석의 객관성과 엄밀성을 보다 향상함으로써 내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29] 특히, 단어 의미망 네트워크 분석기법은 텍스트 내에서 단어 간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구조와 의미에 대한 통찰력 제공이라는 목적에서 수행된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기법은 텍스트 시각화 단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단어 간 근접성(proximity)을 측정하는 의미 네트워크(semantic network)가 단어의 동시 출현 빈도를 통해 도출되는 과정인 것이다. 해당 빈도를 통해 특정 단어 간 자주 발생하는 주제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개념 간 관계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30]



출처: 김용호 외, 『북핵, 리스크와 블랙스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a, p.66.

〈그림 2〉 텍스트마이닝의 진행 과정

27) 박종희 외, 앞의 논문, p.28; 이현지·이화준, "UN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위기관리전략 연구: 북한의 외교성명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64권 제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1, p.39.

28) Feinerer, Ingo, et al., "Text Mining Infrastructure in R",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vol. 25, no. 5, 2008, pp.1-2.

29) 박성호 외, 앞의 논문; 박종희 외, 앞의 논문; 박철수, 앞의 논문; 이현지·이화준, 앞의 논문; Choi, Changyong, and Jesse D. Lecy,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Governance*, vol. 25, no. 4, 2012; Yoon, Jungwon, and Han Woo Park, "Pattern and Trend of Scientific Knowledge Production in North Korea by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Papers in Journal Titled Technological Innovation", *Scientometrics*, vol. 124, no. 2, 2020.

30) Benchimol, Jonathan, et al., "Text Mining Methodologies with R: An Application to Central Bank Texts", *Machine Learning with Applications*, vol. 8, 2022, p.2.

다음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써 인과적 과정 추적법(Causal Process Tracing)은 인과적 메커니즘에 주목한 연구 설계 기법이다. 특정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한 메커니즘 파악을 위해 결정이 진행된 구체적 순서 및 과정, 변수 간의 상호작용 등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방법에 해당한다. 인과적 과정 추적법은 변수 간 인과적 기제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데, 특정 현상이 도출되는 복잡성에 메커니즘 기반의 풍부한 설명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31] 즉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들에 보다 완전한 설명력을 제공함으로써 설명의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향상이 목적이다. 특정 사건을 설명하는 인과기제는 결과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32] 이와 같은 기법은 북한 신년사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에 적합한데, 양적 기법으로 도출한 결과에는 북한의 변화를 적절히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맥락(context)이 소거되어 있음에 기인한다.[33] 따라서 북한의 대내외 관계 일지를 인과적 과정 추적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와 종합함으로써 북한의 핵능력과 국가전략의 연계성을 구체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북한의 신년사를 통해 핵능력과 국가전략 간 연계성에 주목한 분석으로 기존의 연구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직접 발표한 2013~2019년의 신년사이며,[34] 2020~2023년의 경우 미발표됨에 따라 제외했다. 물론 학계에서 북한의 신년사 역할을 대체한 것으로 분석하는 조선로동당 당대회 및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를 분석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해당 자료는 신년사의 형태와 구성의 차이가 있어 연구의 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은 김정은이 직접 발표한 신년사로만 제한하고, 필요에 따라 2차 문헌을 활용함으로써 설명을 보완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인 텍스트의 언어는 북한 문화어가 아닌 영어 기반이다. 선정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북한이 대외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1차적 메시지의 기반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 최고지도부는 대외 청중을 염두에 두고 영어로 신년사를 공식 발표하는데, 이를 분석하는 것이 '북한이

31)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2005; Hall, Peter A, "Tracing the Progress of Process Tracing", *European Political Science*, vol. 12, no. 1, 2013; Kay, Adrian, and Phillip Baker, "What Can Causal Process Tracing Offer to Policy Stud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licy Studies Journal*, vol. 43, no. 1, 2015.

32) 황태연 외, "사례연구와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 새로운 인과관계 추론논리", 『한국행정학보』, 제53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2022, pp.130-131.

33) 이현지·이화준, 앞의 논문, p.40.

34) Kim, Jong-un, "New Year's Address", 2013~2019.

대외에 발신하는 메시지 분석' 차원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분석의 엄밀성 차원으로, 현존하는 텍스트마이닝 패키지인 KoNLP의 경우 우리나라의 한글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북한 문화어를 더욱 엄밀하게 분석하는 데에는 언어공학의 관점에서 일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35]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영어로 작성된 북한의 신년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앞서 논의했듯이 텍스트마이닝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북한의 레토릭을 해석하기 위한 맥락이 제한되므로, 북한의 대내외 관계 일지에 대한 인과적 과정 추적법을 병행해 설명력을 강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혼합 방법론에 입각한 접근(mixed methodology approach)은 연구 대상을 더욱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기 북한이 신년사에서 표현하는 레토릭과 실제 국가전략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며,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는 지점이다.

북한의 신년사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적용에 앞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Text preprocessing)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처리를 거친 텍스트 데이터가 전제되어야 올바른 텍스트마이닝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텍스트 데이터를 R 프로그램의 tm(text-mining) 패키지를 통해 단어 간 공란 제거, 특수기호 및 불용어 제거, 소문자로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을 실시했다. 이후 의미망 분석을 통해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 단어 간의 연관성을 추적 및 파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단어 의미망 분석을 통해 전체 출현 단어 중 어떠한 특정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지 '동시 출현(Co-occurrence)' 양상 파악이 가능하다. 분석 단위는 연도별 신년사 텍스트 전체로, 기본 전처리 과정 이후 단어 토큰화(tokenization)를 거친 출현 단어가 연도별 텍스트에서 구성하는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를 시각화했다. 더불어 동시 출현한 단어들에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부여해 시각화된 동시 출현 네트워크 결과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즉 연결 중심성은 단어 간의 동시 출현 빈도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신년사의 내용이 이뤄지는지를 포착하기에 유용하다. 이러한 네트워크 그래프 상의 각 단어는 원 모양의 노드로 표현된다.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어 관계가 밀접한 단어의 노드는 같은 색으로 표현되며, 다른 단어들과 빈번하게 연결될수록 해당 단어 노드의 크기가 크다.[36] 이와 같은 전처리 과정 수행 이후 Ⅲ·Ⅳ장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분류하고,[37]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단어 네트워크 분석 및 인과적 과정 추적법을 병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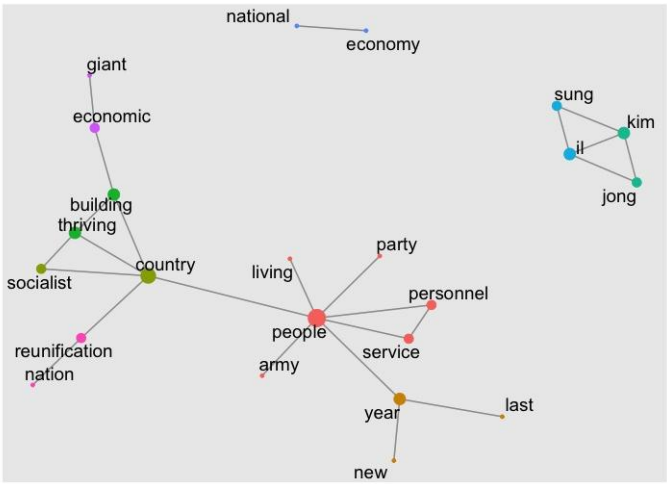
35) 최운호·정회선, "북한 문화어 형태소 분석기(NKMA)의 어절 구조", 『제1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1B, 1998: 이현지·이화준, 앞의 논문, p.38에서 재인용.

36) 이현지·이화준, 위의 논문, pp.39-40.

으로써 핵능력과 국가전략 간의 연계성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Ⅲ. 핵능력 강화 이전 신년사 분석(2013~2016)

김정은 시기 첫 육성 신년사에 해당하는 2013년에서는 인민(people)/국가(country), 그리고 이에 연계된 당(party)/군(army)이 핵심 키워드로 위치한다. 〈그림 3〉을 참조하면, 2013년의 신년사에서 가장 강한 연결 중심성을 보이는 단어는 인민이다. 이와 같은 의미망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연구의 분석 틀을 적용하면, 인민-국가-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국가 기반의 건설 및 번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측면과의 연계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를 운영하기 시작한 첫 해에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대내외 통치체계의 핵심이 신년사에 반영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노선은 동년 3월 31일에 '병진노선'으로 공식화되었는데, 국가발전 전략노선으로서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의 발전을 병행하겠다는 논리다.[38]



〈그림 3〉 2013년 북한 신년사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37) 핵능력 강화의 분류 기점이 되는 2017년은 북한이 핵무력의 고도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연도로, 해당 연도의 신년사에서 핵개발에 더욱 강력히 주력하겠다는 북한의 의지에 근거한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Online Series』 CO 17-01, 2017, p.2.

38)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 2013년 3월전원회의", (2013년 3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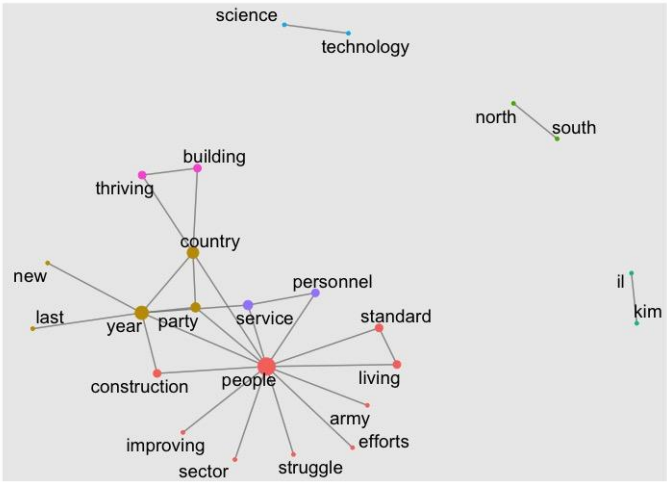
김정은 집권 초기 신년사에서 나타나는 핵심 키워드뿐만 아니라 여타 키워드 역시 인과적 과정 추적법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앞서 논의했던 2013년의 핵심 키워드인 '병진노선'과 관련해, 북한이 강조하는 '과학기술' 관련 언급은 해당 노선의 추진에 있어 주목할 만하다. 2013년의 신년사에서 북한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병진노선-과학기술 간의 연계성을 단적으로 집약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이전 연도에 계획한 광명성-3호 관련 사항을 연계해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은 2012년 3월 16일에 광명성-3호 발사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4월 13일에 광명성-3호 및 은하-3호를 발사했으나 실패한 이후, 4월 20일에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연도에 이어진 12월 12일의 발사를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병진노선-당-과학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광명성-3≫호 2호기발사의 완전성공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자랑찬 결실이며 자주적인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은 북한의 국가전략에 앞선 연계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39] 이러한 기조는 2013년에만 단편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 차원에서 지속되었다.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우주개발법' 채택 및 '국가우주개발국' 신설은 물론,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다양한 종류의 위성 발사 계획을 구상하며 교육기관에 로켓 과학자 양성을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2012년 광명성-3호 발사는 북한이 자생적으로 사거리 1만 km 이상의 ICBM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부품조달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여, 이전보다 더욱 안보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40] 즉 2013년의 신년사에서 김정은 체제 집권 초기의 국가전략을 구상한 병진노선을 뒷받침하는 기제로서 당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관련 행위가 실시됐음을 인과적 과정 추적법을 적용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인민'과 '과학기술'이 중심을 이루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강조한다. 특히 2014년의 신년사에서는 선대 지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정량적으로 감소했는데, 2012년의 공동신년사설에서 65회, 2013년의 신년사에서 26회에 비해 2014년 신년사에서 8회는 그 감소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4〉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이전 연도에 주창한 '병진노선'에 기반해 자신만의 통치기반을

39)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 (2012년 12월 13일).

40) 변상정,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정책 주요 내용과 평가", 『INSS 전략보고』, 137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개황 - 전략무기 개발",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MR108(검색일: 2023.06.14), 2021.

구축하는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선대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전제로, 이른바 '김정은 홀로서기'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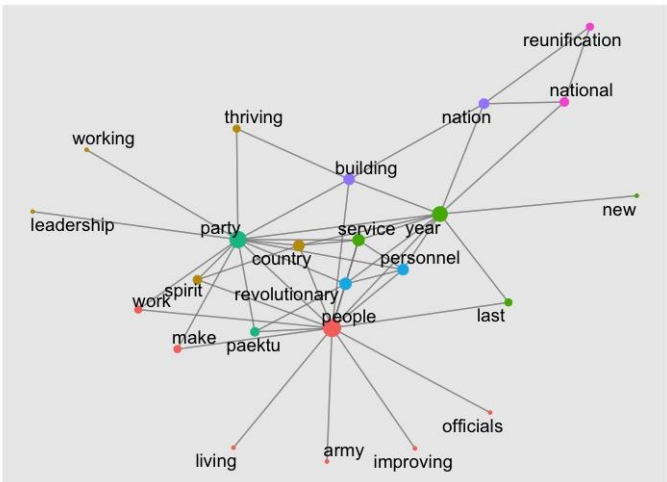


〈그림 4〉 2014년 북한 신년사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2014년의 신년사는 주로 대내통치 차원에서의 강조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대내 차원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북한이 2014년에 대내적 차원에서 레토릭을 반복하는 것은 2013년에 결정한 장성택 처형과 무관하지 않다. 2014년 신년사에서 "우리 당은 지난해에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의 벅찬 시기에 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적중한 시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반당, 반혁명 종파일당을 적발, 숙청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백배로 강화되었습니다."라고 해당 사건을 전체 텍스트의 초반부에 언급한 것은 체제 내부적 차원에서 숙청을 정당화하고 단속해야 했음을 방증한다. 즉 2013년 12월 12일 북한은 "국가전복음모 행위가 공화국 형법 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함을 토대로 특별군사재판 실시해 장성택의 사형을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현대 판종파의 두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순세력을 규합하고 분파를 형성하여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찬탈할 야망밑에 갖은 모략과 비렬한 수법으로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41) 통일연구원 북한자료센터,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Online Series』, CO 14-01, 2014, p.1.

범죄를 감행한 피소자 장성택의 죄행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다."고 언급하는 대목에서 최고지도부에 대한 국가전복의 의도, 즉 체제위협의 죄목을 지적한다.[42]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2014년 신년사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강조하기보다는, 대내 차원에서의 정당성 확보와 내부 안정에 주력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다. 이 의도는 신년사에서 '규율과 질서', '사상교양'에 대한 강조로 표현된다. 더불어 숙청의 여파가 내부에 존재함을 암시할 수 있는데, 장성택 휘하의 중앙당 행정부 관장인 조선인민내무군에 대해 "조선인민내무군안에 당의 영군체계와 혁명적 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하며 노농적위군은 전투훈련을 강화하고 언제나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고 강조한 부분을 통해 숙청에 따른 내부 불안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평가가 가능하다.[43] 대내적 차원에서의 해당 기조는 또한 '투쟁'의 강조로 이어지며, 내부의 단결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4〉의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인민-투쟁(struggle)의 연계성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림 5〉 2015년 북한 신년사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2015년 신년사 의미 연결망 네트워크의 특징은 당(party)과 인민(people)이 강하게 결속되어 있으며, 국가(country)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해당 연계성에 따른 더욱 다양한 의미 연결망이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전 시기에 비

42) 조선중앙통신, "공화국형법 제60조 따라 장성택 사형-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2013년 12월 13일).
43) 통일연구원 북한자료센터, 위의 자료, p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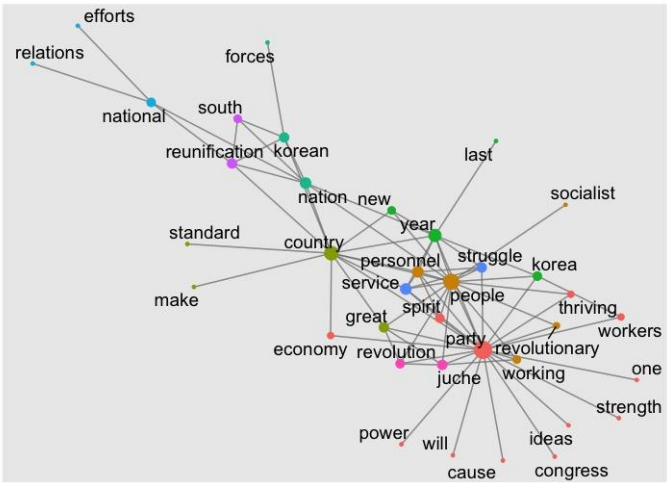
해 해당 키워드와의 연계성을 갖는 단어들이 더욱 증가하며,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서도 높은 연결 중심성을 띠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015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조국해방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해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 건설'로 나아갈 것을 강조한다. 해당 연도를 "조국해방 70돌과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 평가하며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표현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북한은 2015년에 '사상/총대/과학기술'을 핵심 기조로 꼽고 있다. 이를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우선 정치사상의 맥락, 특히 2013년 장성택 처형의 여파가 여전히 대내 분위기에 잔존해 사상적 통제가 필요함을 방증한다. 그 다음으로 언급된 총대는 국방·안보 분야와 직결된 능력 향상과 관련됨을 추론할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핵심 기조를 종합해보면, 이전 시기보다 체제 수호에 무게를 더욱 싣는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체제 수호로의 집중을 추동한 환경적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인과적 과정 추적법을 통해 분석하면 해당 요인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안보 능력 강화를 끊임없이 추진해 온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2.12)과 핵보유국 법제화(4.1)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로 집약되는 강력한 경제제재와 비난을 받았고,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인권 문제가 더욱 부상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에 2014년 북한은 UN 대북 인권결의에 대한 거부 및 초강경대응 선포(11.23)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의 심화를 자초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안보 능력 강화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전략으로 대응한 것이다.

2015년의 신년사에서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 수 없게 되자 비열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 있습니다."라고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공표한다. 이와 같은 핵개발 지속의 기조는 대내외 환경에서 이른바 '현상타파 국가(revisionist power)'로서 북한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작용한다.[44] 2019년의 신년사에서 후술하겠지만, 북한의 안보 능력 강화

44) 국제정치이론에서 국가 성향(state orientation)론은 크게 현상유지(status quo power)와 현상타파(revisionist power or anti-status quo power)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국제사

는 결국 대외관계에서의 변화를 추동한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가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위신의 상승을 경험했기 때문에 해당 기조를 유지 및 강화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북한은 핵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흐름을 바탕으로 자신의 완전한 핵무장이 국제사회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다.[45]



〈그림 6〉 2016년 북한 신년사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2016년 신년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제7차 당대회에 대한 조명과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일환으로 인민생활문제 해결을 강조한 지점이다.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함을 언급하며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전투적 구호는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기존 신년사에서의 정치·사상 관련 분야에 앞서 경제 분야의 성과와 과업을 제시하며, 5월에 개최될 당대회

회에서의 세력균형을 재편하고자 한다는 대표적 분석으로는 우승지, "북한은 현상유지 국가인가?: 김정일 시기 북한의 국가성향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참조.

45) Ban, Kil Joo, "Two-Level Silence and Nuclearization of Small Powers: The Logic of Rendering North Korea Nuclear-Armed", *Korea Observer*, vol. 52, no. 1, 2021, p.77.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핵무력의 실질적 보유를 인식한 상황에서 철저한 '비용-편익(cost-benefit)'의 계산을 통해 핵실험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 정권에게 핵무기는 단순한 협상용이라기보다는 붕괴되었던 기존의 대외관계 및 세력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핵 관련 정책은 지속적인 탄력을 받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KINU 통일 나침반』, UC 15-01, 2015, pp.18-19.

관련 성과 창출을 독려하는 지점은 북한의 당대회에 대한 관심 및 집중도를 방증한다.[46] 또한 당의 제일 국사로 인민생활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전력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침을 강조한다. 2016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인민생활향상을 내세우며 해당 성패로 제7차 당대회를 평가받겠다는 의지의 표명에서 당대회와의 연계지점이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은 체제의 태생적 정당성의 한계를 인민생활향상으로 비롯되는 성과적 정당성으로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것이다.[47]

〈그림 6〉에서 보듯이, 이전 연도에 강한 결속을 보인 당-인민-국가의 연계성은 2016년에 더욱 다양한 연결망으로 확장한다. 해당 키워드들과 연결망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신년사의 핵심으로 강조하는 내용에 직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이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인민대중 제일주의'에 정당성을 두고 당 주도의 강성국가 건설로 나아가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즉 당-인민-국가의 연결망이 동일하게 주요한 구성으로 이뤄져 있고, 경제(economy) 역시 당과 국가라는 핵심 키워드와의 연계성을 보이는 것이다.

신년사 발표 이후 북한의 실제 행위는 레토릭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2016년에 제4차 핵실험(1.6), 광명성-4호 시험발사(2.7),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1형 시험발사(4.23, 8.24), 제5차 핵실험(9.9)을 실시하며 신년사에서의 핵위협 자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48] 인과적 과정 추적법을 적용해보면, 2016년 북한의 핵능력 강화 움직임은 대내통치의 안정 이후 대외관계 개선 목적의 돌파 시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당-인민-국가의 강력한 연계성을 핵심 노선으로 추진하는 대내통치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 차원에서는 안보 능력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핵무장을 통한 협상력을 강화한 것이다. 김정은의 실제 의도를 차치하더라도 이 지점은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다음 연도에 예정된 미국 행정부의 교체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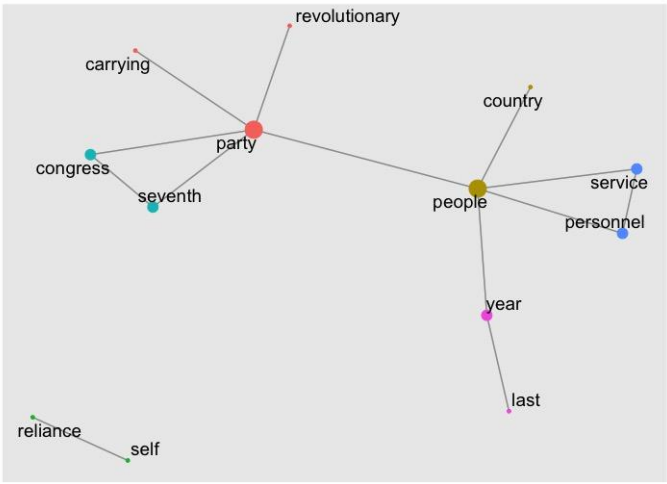
46) 통일부, "2016년 「北 신년사」 분석", 2016, p.1.

47)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Online Series』, CO 16-01, 2016, p.2.

48) 제4차 핵실험은 첫 수소폭탄 시험으로, 북한은 "력사에 특기할 수소탄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민족의 기개를 떨치게 되었다."라고 해당 시험을 자평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정부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2016년 1월 6일). 제5차 핵실험 이후에는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가지 분렬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리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대로 필요한만큼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의 핵무기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라고 핵무기 고도화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 핵무기연구소 핵탄두폭발시험에 성공", (2016년 9월 9일).

심화돼가던 북한은 대외관계 변화의 타개수단으로 핵능력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결국 북한이 언급하는 대외적 국가 관계(national relations)는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지위를 안보 역량의 강화로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인과적 과정 추적법을 통해 집약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김정은 시기의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대외관계를 변화하려는 노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이어지는 신년사의 분석에서도 해당 특징은 북한의 전략적 대응의 기저로 작동한다.

Ⅳ. 핵능력 강화 이후 신년사 분석(2017~2019)



〈그림 7〉 2017년 북한 신년사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2017년 신년사 네트워크에서 높은 연결 중심성을 띠는 키워드는 인민-당으로, 특히 당과 연계성이 있는 단어가 7차 대회(seventh congress)로 나타남은 전체 신년사 텍스트에서 관련 내용이 자주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신년사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제7차 당대회 결정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목표를 분야별로 강조한 점이다. 즉 2016년의 성과를 개괄하는 부분이 ① 제7차 당대회, ② 핵·미사일의 고도화, ③ 70일·200일 전투성과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이전의 신년사가 각 부문별 성과의 단순 나열에 가까웠던 것에 비해, 2017년은 3가지의 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의미 부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공을 들인 흔적을 엿볼 수 있다.[49] 더불어, 신년사 의미 연결망

네트워크에서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는 자력(self-reliance)이다. 신년사 원문에는 '자력자강'으로 언급되는 해당 표현은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는 국가전략의 추진에 있어 내부를 결집하는 중요한 구호로 강조하는 것이며, 2019년의 자력갱생과 2020년 정면돌파로 집약되는 북한 국가전략의 핵심 기저로도 작동한다.

2017년 신년사의 또 다른 특징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의지 천명이다.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소탄(수소폭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 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첨단무장장비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됨"을 강조하는데, 핵무력의 고도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이전 핵실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한다. 더불어, 이른바 자신의 핵개발의 원인이 외부위협에 대응한 방위력 확보에 있다는 기존의 기조를 반복하며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으로 공세적 핵능력을 더욱 강조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북한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2017년을 기점으로 고도화를 보다 강력하게 주력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50]

북한의 핵능력 강화 의지를 인과적 과정 추적법을 통해 분석해보면, 신년사 발표 이후 북한은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다양화를 추구함을 알 수 있다. 시간 순으로 정렬해보면, 북한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발사를 연속적으로 성공하며 해당 성과를 강조한다. 2017년의 첫 시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가 개발됨으로써 이제 우리 인민군대는 수중과 지상 임의의 공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전략적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51]는 언급과 이어진 시험에서 "부대실전배비를 앞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가 또 한번 성과적으로 진행"[52]되었다는 것에서 핵무기 투발수단 다양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 발사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53] 김정은은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케트발사훈련

49)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Online Series』 CO 17-01, 2017, p.2.
50) 위의 자료.
51) 로동신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 (2017년 2월 13일).
52) 로동신문,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 울려퍼진 다발적, 련발적 뇌성", (2017년 5월 22일).

을 많이 하여 전략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54]는 발언으로 미국 본토로의 직접 타격이 가능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특히, 제6차 핵실험(9.3) 이후 실시한 추가 발사 훈련에서 "이번 로케트발사훈련은 최근 우리에 대한 군사력사용을 떠들어대고있는 미국의 호전성을 제압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적대응으로 맞받아치기 위한 공격과 반공격작전수행능력을 더욱 강화하며 핵탄두취급질서를 점검하고 실전적인 행동절차를 확정할 목적밑에 진행"[55]했다는 지점은 앞선 맥락을 더욱 강화하는 대목이다. 신형 ICBM인 화성-14형,[56] 15형[57]의 연속적 발사 시험 또한 지속되었는데, 타격능력은 물론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회피기술까지 갖춘 북극성-2형(IRBM)과 화성-15형(ICBM) 개발을 완료한 것은 북한의 투발 수단이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다양화됐음을 의미한다.[58]

이렇듯 북한은 2017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실제 행위로 직결하며 김정은의 구상을 실현했다. 대외적 측면에서 북한의 2017년 정책의 역점을 분석해 보면, 이른바 '핵무력 완성 및 광폭행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은 신년사에서의 의지를 실제 끊임없는 핵무기 투발수단의 다양화 목적의 실험을 지속했다. 특히 북한은 국가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59]한 이후 "기동성과 명중성이 확고히 보장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무기체계는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명실공히 조선로동당식 무기체계이며 이로써 우리 국가는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대륙간탄도로케트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되였다."고 자평하며 11월 29일의 화성-15형 시험 발사 이후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이 이룩된 민족적대경사의 날"로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60] 이

53) 로동신문,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 성공", (2017년 5월 1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2017년 8월 30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발사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2017년 9월 16일).

54) 로동신문, 위의 자료, (2017년 8월 30일).

55) 로동신문, 앞의 자료, (2017년 9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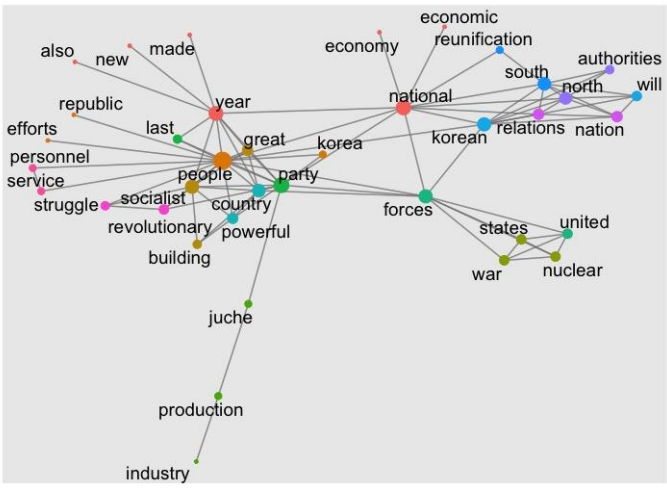
56) 로동신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명령 하달", (2017년 7월 5일);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의 일대 시위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2017년 7월 29일).

57) 로동신문, "만세 만세 만만세!" (2017년 11월 30일).

58) 변상정, 앞의 자료, p.17.

59)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2017년 9월 4일).

는 후술하게 될 2018년 신년사의 내용에도 직결되는 것으로, 김정은이 추진하는 '병진노선'의 정당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 8〉 2018년 북한 신년사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그림 8〉의 의미 연결망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2018년 신년사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신년사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인 당-인민의 결속을 바탕으로, 핵무력(nuclear forces) 관련 단어로 전쟁(war), 미국(united states), 평화(peace)가 연결성을 보인다. 이는 이전 연도에 광폭행보를 보였던 핵무력 고도화의 행위를 신년사에서 레토릭으로써 집약하면서도, 자기 정당화의 목적에서 결국 북한이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원인을 미국에 전가하는 특징을 보이는 지점이다. 더불어, 김정은 시기 통치의 핵심 노선인 '병진노선'의 중요한 축으로써 안보 능력의 강화를 일궈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병진노선'의 다른 축인 경제 분야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즉 북한의 "공화국 핵무력 건설에서 이룩한 역사적 승리를 새로운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 공세를 벌여 나가야"한다는 강조는 '병진노선'을 통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에서 결국 경제 분야에서의 발전이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핵능력의 고도화 성과를 이뤘듯이 총 공세를 통해 경제 분야의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함을 알 수 있다.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제껴야 하겠습

60) 로동신문, 앞의 자료, (2017년 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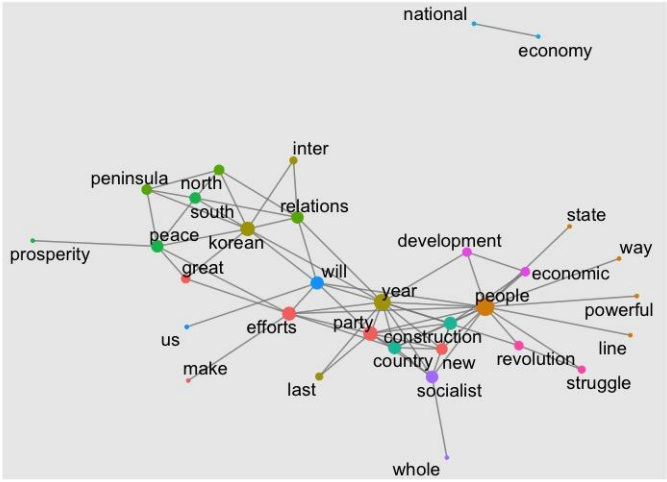
니다."는 표현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김정은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압박에 대응해 장기전 체제를 준비하려는 목적에서 대내적 정비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권 70주년에 걸맞는 경제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61]

2018년에 들어 북한은 이전 연도의 핵·미사일 고도화 국면을 전환하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활용해 정세관리를 모색하는 변화를 보인다. 실제 신년사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의 화해·협력 메시지에 대해 ①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②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 실현, ③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 등을 제시하며,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는 변화 지점이 나타난다.[62] 이는 2017년 5월 새롭게 취임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제안과 무관하지 않은데,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북한이 군사도발을 중단한다면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겠다고 제안하는 동시에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와 한반도 정세 이완을 시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 전환 움직임을 바탕으로, 북한은 2018년에 유화적 외교전략으로의 전환에 나선다. 즉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과 대외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 및 관리하게 된 것이다.[63]

이와 같은 변화 지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른 차원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즉 김정은은 추가 도발이나 고도화의 진전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전쟁억제력'이라는 방어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기존에 북한이 수행해 온 전략도발은 당분간 자제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핵·미사일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사업, 그리고 북한이 구체화하는 '핵반격작전태세(2차 공격능력)'의 강조는 향후 SLBM과 MIRV(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다탄두각개진입탄도미사일), 지대함·대공미사일 등의 한·미 전략자산 틈새를 공략하는 무기 시험 가능성의 전제에서 비롯된다. 종합적으로 북한은 기존의 전략도발보다는 UN 안보리 결의안을 우회하는 방향에서의 핵무력 실전화 및 은밀성을 극대화하는 군사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64] 관련해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라는 김정은의 언급은 이른바 현상타파를 위한 핵능력이 보장되었으므로, 미국 중심의 현상유지를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61) 홍민 외,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KINU Insight』, 18-01, 2018, p.2.
62) 위의 자료, p.1.
63) 김용호 외, 『INSS 국가행동 분석: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 대외행동의 특징과 유형』,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b, pp.42-45.
64) 홍민 외, 앞의 자료, pp.1-2.



〈그림 9〉 2019년 북한 신년사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2019년 신년사는 〈그림 9〉의 의미망 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화(peace)가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이고 국가 관계(national relations)와 관련된 단어가 남(south), 북(north), 번영(prosperity)과 연결망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정은 집권 이후 신년사에서 '비핵화' 관련 내용을 직접 구체화한 것은 주목할 지점이다. 북한은 크게 '핵 동결' 단계(신뢰조성 단계)와 '핵 폐기' 단계(본격적 이행단계)로 비핵화 과정에 접근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지점은 신년사에서도 언급했듯 북한이 취해 온 '핵 동결'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실천행동'에 따라 핵 동결 단계 마무리와 본격적 비핵화 단계 진입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명확히 적시한 부분이다. 즉 북한은 미국과 합의한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의 공감대는 물론, 신년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차후 협상과 대외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일방적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협상 대상인 미국과의 상응하는 차원에서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과 협상에 대한 의지는 강하긴 하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의 상응 조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6.12 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수사적 배수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65]

이렇듯 2018년에 획기적으로 전환된 북한의 대외관계는 2019년 신년사에서 기대와 의

65)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신년사분석팀,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 및 정세 전망", 『Online Series』, CO 19-01, 2019, pp.3-4.

지로 표현되었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의 노딜 이후 교착 상태가 시작된다. 신년사 발표 이후 2.27에 실시한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 對 경제제재 해제' 주제를 논의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결국 결렬된다. 미국과의 협상 결렬과 이어진 대외관계의 교착은 2020년 북한이 자력갱생과 정면돌파 노선을 채택하는 중대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대내외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면, 미국과의 협상 결렬에 따른 자구(self-help)적 요소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통해 안보 능력을 향상한 북한은 미국과 '핵 시설' 폐기 관련 협상을 통해 이른바 대북제재의 수위를 낮추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대내적으로 강조한 정치/경제적 영역에서의 전환 및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 더욱 요원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의 새로운 대외선전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보다 두드러지는데, 2019년 10월 중순의 첫 영상 업로드를 시작으로 철강 공단, 평양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의 김정은이 강조하는 대내적 사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선전을 통해 북한은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지만, 업적의 성공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패에 따른 '우리국가제일주의' 통치의 강조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대외선전에서 북한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다.[66]

북한의 불안과 위기의식은 최근 더욱 집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대변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러시아(4.25), 중국(6.20)과의 정상회담과 한국·미국과의 판문점 정상회동(6.30) 및 실무협상(10.4) 등 2년 간 꾸준히 대외관계 개선의 돌파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이러한 대외환경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첨단화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은 2021년 9월 28일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에 속하는 극초음속미싸일연구개발사업"이라고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발사를 정의하며 시험 발사에서의 성공을 언급했다.[67] 이후 북한은 2022년 1월 11일 김정은의 현지 참관 발사를 추가 실시하는데, "시험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특성들을 최종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해당 실험을 설명하며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언급하며 극초음속미사일의 최종 완성을 선언한다.[68] 이외에도 국방과학원 주관으로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 훈련

66) 박성호 외, 앞의 논문, pp.150-153.
67) 로동신문, "국방과학원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싸일 ≪화성—8≫형 시험발사 진행." (2021년 9월 29일).

(1.14), 전술유도탄 검수사격 시험 실시(1.17) 등 북한은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더욱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69] 즉 전략 무기 및 핵 투발 수단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맥락으로,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ransporter Erector Launcher, TEL) 시험을 비롯한 일련의 시험 발사는 이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2014년 북한-이란 간 탄도 미사일 개발 협력 관련 기고에서의 '초대형 ICBM 개발 추진 및 향후 MIRV 탑재 능력의 가능성'과 최근 화성-17형 관련 실험으로 '신형 ICBM의 기술 진전과 MIRV 간의 연계성' 지적은 북한의 전략적 향방을 예측하는 데에 일종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70] 유사한 맥락에서, 신생 핵무장 국가가 MIRV 능력을 보유하고자 할 것이라는 분석은 북한의 향후 경로에 이론적 설명을 제공한다.[71] 물론 북한이 MIRV 개발에 집중해 탄두 수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핵전력 불균형에 유의미한 추월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성은 비록 떨어지지만 새로운 무기를 과시함으로써 긴장을 고조해 온 북한의 특성을 고려할 때 MIRV 개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72]

2019년 이후 북한 레토릭의 세부 강조 지점은 대내외 환경에 따라 변화하나, 큰 틀에서는 외부 환경에서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핵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울이는 공통점을 보인다. 2020년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길'은 대북제재에 대한 자력갱생을 내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는 핵 억제력 강화를 외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대북 입장에 따라 정책적 운신 폭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의도를 내포한다.[73] 2021년 역시 대내적으로는 당 중심의 내구력 향상과 대외적으로는 핵무기 고도화 선언이라는 압박 카드를 통해 향후 정세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가변적 공간을 마련했다.[74]

---

68) 로동신문, "주체적국방공업령도사에 아로새긴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공적 또다시 만천하에 과시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에서 련속성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시였다", (2022년 1월 12일).

69) 로동신문,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 진행", (2022년 1월 15일); "전술유도탄검수사격시험 진행", (2022년 1월 18일).

70) Lewis, Jeffrey, "The Axis of Orbit: Iran-DPRK Space Cooperation", *38 North* (Jan 13, 2014), https://www.38north.org/2014/01/jlewis011314(검색일: 2023.07.27); Van Diepen, Vann H, "Revisiting the Hwasong-17/15 Controversy: What if North Korea Had Launched a Hwasong-15?", *38 North* (Apr 27, 2022), https://www.38north.org/2022/04/revisiting-the-hwasong-17-15-controversy-what-if-north-korea-had-launched-a-hwasong-15(검색일: 2023.07.27).

71) Kim, Jaehak, and Woosang Kim, "Simulation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Missile Defens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8, no. 3, 2021.

72) 김보미,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MIRV의 가능성과 한계", 『이슈브리프』, 175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73)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Online Series』, CO 20-01, 2020.

74) 홍민 외,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KINU Insight』, 21-01, 2021.

한편, 2022년에는 대내적 경제문제를 핵심 주제로 상정하며 기존의 일관된 노선으로 대외 방향을 유지함을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경화된 대미·대남 메시지가 별도로 강조되지 않았음은 이전 연도의 대외전략 기조를 지속할 것임을 방증한다.[75] 2023년에 북한은 대내적 차원에서 '새 시대 당건설 5대 노선'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적대적인 대미·대남 메시지를 구체화했다. 이와 같은 기조는 대내적으로 강조한 국방력 강화 중심의 정책 운용과도 접맥하는 부분으로, 전술 핵을 대남 대적 행동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며 이른바 공세 행동에 대한 명분 확보와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태도에 대한 공세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76] 이러한 맥락을 통해 북한은 향후 전략적 시험 발사와 도발을 이어가며, 국가전략 특히 대외관계 국면 전환에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신년사 텍스트마이닝 분석과 인과적 과정 추적법을 적용한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을 통해 핵능력 강화가 북한의 국가전략 구상에 가장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핵능력 강화 이전에는 대내통치 안정화에 집중을, 이후 시기에는 대외관계 개선 및 '병진노선'의 다른 한 축인 경제 영역에 대한 강조가 그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핵능력 강화가 공식화된 2017년 이전의 북한은 국가전략의 중요한 기반으로 대내정치 및 김정은 리더십의 공고화에 집중했다. 이러한 특징은 '병진노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전략의 추진과 이를 위한 당-인민-국가, 나아가 대외관계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핵능력 강화 이전의 시기는 북한은 대내통치와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집중한 것이다. 2017년에 핵능력 강화로 전환했다고 대내외적 평가를 받은 북한은 이후 미국과의 직접 협상과 대외관계의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했다. 특히 2016년에 개최한 당 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은 '병진노선'에 박차를 가했고, 대북제재의 국면 전환을 위한 협상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2018년 신년사에 안보 능력 강화의 결과로 핵능력 확보를 최초로 언급하는 점을 통해, 이른바 북한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핵능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했던 선결조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전략의 추진은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최초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협상 결렬로 인해 북한은 국가전략의 수정이 필요했고, 자력갱생과 정면돌파로 집약되는 전략으로 이를 우회했다. 2019년 이후 미국과의 대외관계는 교착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결국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넘어 투발수단의 다양화 및 팽창으로 귀결하고 있다.

75)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 『Online Series』, CO 22-01, 2022.

76)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 제8기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Online Series』, CO 23-01, 2023.

〈표 1〉 김정은 시기 신년사 키워드 및 관련 행위 양상

기간 구분	연도	신년사에서의 중심 키워드	관련 행위
핵능력 강화 이전	2013	인민/국가/경제 (people/country/economic)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 발표 -과학기술에 기반한 병진노선 추진 강조
	2014	인민/과학기술 (people/science technology)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강조 -장성택 처형 이후 대내적 차원에서의 내부 단결(인민-투쟁) 강조
	2015	당/인민/국가 (party/people/country)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를 위한 사상/총대/과학기술 강조 -이전 시기보다 체제 수호의 강조
	2016	당/인민/국가 (party/people/country)의 연결망 확장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기반으로 당 주도의 강성국가 건설 추진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언급 등장(national relations)	-대외관계 측면에서 핵무장을 통한 협상력 확보 -대내통치 안정 이후 대외관계 개선 목적의 돌파 시도
핵능력 강화 이후	2017	당/인민(party/people)	-당-인민을 중심으로 7차 당대회와의 유기적 연결 -핵능력 강화 의지의 공식 천명 및 광폭적 미사일 발사
		16년 7차 당대회 강조 (seventh party congress)	
		자력(self-reliance) 등장	-내부 결집의 중요 구호로서 북한 국가 전략의 핵심
	2018	핵무력/전쟁/미국/평화 (nucelar forces/war/united states/peace)	-핵능력 강화를 레토릭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원인을 미국에 전가 -병진노선에서 안보 능력의 강화 충족, 경제 분야에 대한 강조
		경제 언급↑ (national economy)	
	2019	평화/남북/번영 (peace/south-north/ prosperity)	-2018년에 획기적으로 전환된 대외관계에서의 기대 및 의지 -대외관계 교착에서 자력갱생, 정면돌파 노선 채택 -미사일 시험발사 집중

Ⅴ. 결론

이 연구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국가전략 간의 연계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북한의 1차 자료인 신년사에 주목했다. '핵능력 강화 전후 북한의 국가전략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핵능력 강화 이전에는 대내통치에 집중한 국가전략을, 이후에는 대외관계 개선 및 '병진노선'의 다른 한 축인 경제 영역에 대한 강조가 반영된 국가전략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연구 주장을 텍스트마이닝 분석과 인과적 과정 추적법을 병행해 검증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레토릭과 실제 행위 간의 연계성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핵능력 강화 전후 북한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와 실제 행위와의 강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핵능력 강화는 북한의 국가전략 구상에 가장 중요한 축으로써, 이른바 '병진노선'의 작동 기저의 핵심임을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재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핵능력 강화 이전 시기에는 대내통치 안정화에 집중을, 이후 시기에는 대외관계 개선 및 '병진노선'의 다른 한 축인 경제 영역에 대한 강조로 해당 특징을 집약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김정은 시기 핵능력 강화가 국가전략의 설정 및 추진의 핵심에 있음을 방증하며, 연구 주장을 입증한 의미가 있다. 앞서 분석했듯이 북한은 2018년의 미국과의 정상회담 실시 이전까지 대내적 차원에서 통치의 정당성과 김정은의 리더십 확보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안보 능력의 강화 역시 병행함으로써 나름의 협상 조건을 충족했다. 이후 유화적 대외정책으로 전환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북한의 기대치를 달성하는 듯 했으나, 핵 시설을 비롯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은 결렬됐고 교착상태가 시작되었다. 2019년 신년사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더욱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전략적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한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존재하는데, 데이터와 분석 결과의 차원이다. 우선 데이터 차원에서 텍스트마이닝의 분석 대상을 시계열적으로 모두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2020~2023년의 데이터가 신년사의 형태로 발표되지 않았음에 기인한다. 다음은 분석 결과적 측면으로, 앞선 연구 결과가 학계의 기존 분석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언급한 한계 중 먼저 데이터의 경우, 해당 한계를 부분적으로나마 극복하기 위해 북한의 신년사 역할을 대체한 것으로 평가하는 1차 문헌(조선로동당 당대회 및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 등) 또한 인과적 과정 추적법의 분석 대상으로 활용함으로써 객관성을 향상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측면의 경우, 기존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기존 연구의 결과를 양적·질적 분석으로 더욱 다각화하여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앞선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김정은 시기 핵능력과 국가전략 간의 연계성을 구체화하는 기초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즉 김정은 시기 북한의 신년사에서 강조하는 키워드를 실제 대내외적 행위와 연계해 양적·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핵능력 강화 전후의 국가전략을 기초적으로나마 설명한 연구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는 추후 다양한 데이터 및 데이터 특성에 따른 방법론(토픽 모델링, 감정분석 등)을 적용한 후속 연구의 풍부한 설명력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북한 문헌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 (2012년 12월 13일).

_____,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 (2017년 2월 13일).

_____,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 성공”, (2017년 5월 15일).

_____,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 울려퍼진 다발적, 련발적 뇌성”, (2017년 5월 22일).

_____,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명령 하달”, (2017년 7월 5일).

_____,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의 일대 시위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2017년 7월 29일).

_____,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2017년 8월 30일).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2017년 9월 4일).

_____,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발사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2017년 9월 16일).

_____, “만세 만세 만만세!” (2017년 11월 30일).

_____, “국방과학원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싸일 ≪화성—8≫형 시험발사 진행.” (2021년 9월 29일).

_____, “주체적국방공업령도사에 아로새긴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공적 또다시 만천하에 과시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에서 련속성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시였다”, (2022년 1월 12일).

_____,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 진행”, (2022년 1월 15일).

_____, “전술유도탄검수사격시험 진행”, (2022년 1월 18일).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 2013년 3월전원회의”, (2013년 3월 31일).

_____, “공화국형법 제60조 따라 장성택 사형-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2013년 12월 13일).

_____, “조선정부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2016년 1월 6일).
_____, “조선 핵무기연구소 핵탄두폭발시험에 성공”, (2016년 9월 9일).

2. 국내 문헌

구본윤·박성호, “김정은 시기 핵전략의 이중성: 확증보복태세와 허세부리기”, 『통일연구』, 제26권 제2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22.
김보미,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MIRV의 가능성과 한계”, 『이슈브리프』, 175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김완서, “김정은 신년사 연도별 담화 비교 분석: 2017년, 2018년, 2019년 신년사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80집, 동악어문학회, 2020.
김용호·이화준·박성호, 『북핵, 리스크와 블랙스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a.
김용호·김인태·김종원·박순성·양문수·이기동·이상근·이정철·임수호, 『INSS 국가행동 분석: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 대외행동의 특징과 유형』,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b.
김원식·이기동,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 동향 분석”, 『INSS 전략보고』 93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김인경, “북한 핵무기 법제화에 국제사회 우려…‘안보 위협’”, 『이데일리』(2022년 9월 10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32458808(검색일: 2023.06.14).
김태경, “‘사회주의 전면발전론’과 김정은 정권 중장기 국가전략: 개혁개방기 중국 장기 발전전략의 비교적 시각”, 『한국정치연구』 제32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3.
김홍익, “김정은 시대의 북한 핵전략: 왜 확증보복태세인가?”, 『한국군사학논집』 제77집 제2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1.
남광규, “북한의 ‘민족공조’ 강화와 한미관계 -〈신년사〉 내용과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제18권 제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박성호·이화준·김용호, “북한은 유튜브를 통해 무엇을 말하는가?: 주제 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5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21.
박종희·박은정·조동준,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15.
박철수,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지도자의 신년사 및 연설문 트렌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제26권 제3호, 한국데이터전략학회, 2019.
변상정,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정책 주요 내용과 평가”, 『INSS 전략보고』, 137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서재준, “北, ‘핵무력 정책’ 새 법령 채택…11개 조항으로 ‘선제공격시 핵사용’(종합)”, 『뉴스1』(2022년 9월 9일), https://www.news1.kr/articles/4798824(검색일: 2023.06.14).
안경모, “북한의 대외전략 분석(2008-2016): ‘편승’에서 ‘균형’으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2권 제4호, 세종연구소, 2016.
_____, “‘새로운 전략적 노선’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 균형전략으로의 재전환과 그 함의”, 『한국정치연구』, 제32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3.
오경섭·김진하·홍석훈·이지순·한기범·이해정·이혜진,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0.

우승지, “북한은 현상유지 국가인가?: 김정일 시기 북한의 국가성향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이성춘, “북한 신년사 분석을 통한 김정은 시대 지속과 변화”, 『융합보안 논문지』, 제14권 제6호, 한국융합보안학회, 2014.
_____,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 신년사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제12권 제2호, 인문사회 21, 2021.
이종주, “북한 핵정책의 변동(2009-2017): ‘전면적인 내부적 균형’의 핵정책 형성”, 『국제정치논총』, 제59집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9.
이현지·이화준, “UN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위기관리전략 연구: 북한의 외교성명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64권 제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1.
정성윤, “북한의 핵전력과 핵전략”, 정성윤 외 편.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차정미,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전략: ‘세기의 대변화론-중국몽-일대일로’ 연계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제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최운호·정회선, “북한 문화어 형태소 분석기(NKMA)의 어절 구조”,『제1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1B, 1998.
통일부, “2016년 「北 신년사」 분석”, 2016.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개황 - 전략무기 개발”,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MR108(검색일: 2023. 06. 14), 2021.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Online Series』, CO 16-01, 2016.
_____,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Online Series』 CO 17-01, 2017.
_____,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Online Series』, CO 20-01, 2020.
_____,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 『Online Series』, CO 22-01, 2022.
_____, “북한 제8기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Online Series』, CO 23-01, 2023.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KINU 통일 나침반』, UC 15-01, 2015.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신년사분석팀,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 및 정세 전망”, 『Online Series』, CO 19-01, 2019.
통일연구원 북한자료센터,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Online Series』, CO 14-01, 2014.
한승호·김관호, “북한 신년사(2013-2017)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의 농축수산업 분석”, 『평화학연구』, 제18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7.
홍민·박영자·오경섭·홍제환,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KINU Insight』, 18-01, 2018.
홍민·오경섭·김진하·홍제환·최지영·정은이·정은미,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KINU Insight』, 21-01, 2021.

홍우택, "북한의 국가성향 분석과 모의 분석을 통한 핵전략 검증",『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4호, 한국국방연구원, 2017.
황지환, "북한은 핵실험 이후 더 공격적인가?: 현상타파 대외전략과 현상유지 대외정책의 결합",『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제1호, 한국정치학회, 2018.
황태연·정규진·이명석, "사례연구와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 새로운 인과관계 추론논리",『한국행정학보』, 제53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2022.

3. 영문 문헌

Ban, Kil Joo, "Two-Level Silence and Nuclearization of Small Powers: The Logic of Rendering North Korea Nuclear-Armed", *Korea Observer*, vol. 52, no. 1, 2021.
Benchimol, Jonathan, Sophia Kazinnik, and Yossi Saadon, "Text Mining Methodologies with R: An Application to Central Bank Texts", *Machine Learning with Applications*, vol. 8, 2022.
Brighi, Elisabetta, and Christopher Hill, "Implementation and Behaviour", *In Foreign Policy: Theories, Actors, Cases*, edited by Steve Smith, Amelia Hadfield, and Timothy Dun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Choi, Changyong, and Jesse D. Lecy,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Governance*, vol. 25, no. 4, 2012.
Dalton, Toby, and Jina Kim, "Rethinking Arms Control with a Nuclear North Korea", *Survival*, vol. 65, no. 1, 2023.
Delury, John, "North Korea in 2019: A Year of Strategic Adjustment", *Asian Survey*, vol. 60, no. 1, 2020.
Feinerer, Ingo, Kurt Hornik, and David Meyer, "Text Mining Infrastructure in R",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vol. 25, no. 5, 2008.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2005.
Hall, Peter A, "Tracing the Progress of Process Tracing", *European Political Science*, vol. 12, no. 1, 2013.
Kay, Adrian, and Phillip Baker, "What Can Causal Process Tracing Offer to Policy Stud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licy Studies Journal*, vol. 43, no. 1, 2015.
Kim, Jaehak, and Woosang Kim, "Simulation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Missile Defens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8, no. 3, 2021.
Kim, Jong-un, "New Year's Address", 2013~2019.
Lee, Dong Sun, and Iordanka Alexandrova,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Envisioning Assured Retali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21, no. 3, 2021.
Lewis, Jeffrey, "The Axis of Orbit: Iran-DPRK Space Cooperation", *38 North* (Jan 13, 2014), https://www.38north.org/2014/01/jlewis011314(검색일: 2023.07.27).
Narang, Vipin,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_____,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8, no. 1, 2015.

Narang, Vipin, and Ankit Panda, "North Korea: Risks of Escalation", *Survival*, vol. 62, no. 1, 2020.

Scobell, A., Edmund. J. Burke, Cortez A. Cooper III, Sale Lilly, Chad J. R. Ohlandt, Eric Warner, and J. D. Williams, *China's Grand Strategy: Trends, Trajectories, and Long-Term Competition*,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20.

Smith, Shane,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Strategy", *North Korea's Nuclear Future Series*, US-KOREA INSTITUTE AT SAIS, 2015.

Van Diepen, Vann H, "Revisiting the Hwasong-17/15 Controversy: What if North Korea Had Launched a Hwasong-15?", *38 North* (Apr 27, 2022), https://www.38north.org/2022/04/revisiting-the-hwasong-17-15-controversy-what-if-north-korea-had-launched-a-hwasong-15(검색일: 2023.07.27).

Yoon, Jungwon, and Han Woo Park, "Pattern and Trend of Scientific Knowledge Production in North Korea by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Papers in Journal Titled Technological Innovation", *Scientometrics*, vol. 124, no. 2, 2020.

【 Abstract 】

What is the Linkage between Nuclear Capability and National Strategy in Kim Jong-un Period? : Text Mining Analysis and Causal Process Tracing on New Year's Address

Park, Seongho

This research analyzes the linkage between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nd national strategies during the Kim Jong-un period. Since the existing studies have relatively insufficient specifications, most of the studies' methodologies have limitations in empirically explaining that linkage.

To compensate for this research gap, I embody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s rhetoric and actual behavior by combining text mining and causal process tracing analysis methods on New Year's address of North Korea(2013~2019). The result strongly connects the core keywords of North Korea's New Year's address and their actual behaviors.

This mixed methodology approach demonst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inspecting the keywords emphasized in the New Year's address and actual behaviors. It could contribute to a more multifaceted and empirical explanation of North Korea.

Key Words : North Korea, Nuclear Capability, National Strategy, Text Mining Analysis, Causal Process Tracing

• 논문투고일 : 2023년 7월 30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3년 8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8월 18일